

번호 I-1

제 목	국문	일부 고등학생의 배변 건강관리실태 및 항문질환 위험요인 분석			
	영문	Status of Bowel Health and Risk Factors related to Anal Disease in Some High School Student of Taegu City			
저 자 및 소 속	국문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대구 학문외과의원 ¹ 이무식, 김은영, 박준희 ¹ , 조두희 ¹			
	영문	Moo-Sik Lee, Eun-Young Kim, Jun-Hee Park ¹ , Doo-Hee Cho 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Taegu Hak-Mun Surgical Clinic ¹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0년 11월				

1. 연구 목적

치핵 및 치루는 해부학적 이상, 유전, 체형, 기후, 연령, 습관, 임신, 식이, 관장, 변비, 임신, 분노, 직업 활동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하여 발생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들 질환의 유병과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청소년의 배변습관과 관련된 요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치핵 및 치루 등 항문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찾기 위하여 시행된 단면조사 연구로 종속변수로는 배변과 관련된 건강상태로 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배변관련 요인, 식사관련 요인, 화장실 관련 요인, 스트레스 관련요인 및 기타 관련요인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조사대상자 표본은 임의 추출에 의하여 대상 고등학교 6개교 1·2학년 1884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된 1882명의 자료 중에서 기본자료가 조사되지 않은 경우 등 분석에 부적절한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자는 인문계 고등학생 965명(51.3%), 실업계 고등학생 917명(48.7%)으로 남학생 920명(48.9%), 여학생 962명(51.1%)이었다. 자료 중 일부 결손자료는 시스템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본 조사는 2000년 8월중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사전에 해당학교에 협조를 받은 다음, 의원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담임선생님의 사전 협조하에 이루어졌다. 담당직원은 사전에 설문조사법 등 조사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수기를 교육받았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개발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우리 나라에서 실태조사에 사용된 문항들을 수집하여 분석한 후, 수정하여 개발하였으며, 일부문항들은 첨부, 보완되었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사회인구학적 조사변수로는 성, 연령, 주거형태, 부모의 직업, 가계 수입, 가족 수, 형제순위 등 12개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배변관련 7개문항, 식사관련 8개문항, 화장실 관련 5개문항, 스트레스 관련 2개문항, 기타 관련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7.5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필요한 경우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Chi-square 검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변수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중요한 기여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3. 연구 결과

배변횟수에 있어서는 전체대상자의 48.2%(898명)가 1일 1회의 배변습관을 보였으며, 28.2%(525명)는 2일에 한번씩 변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변습관에서는 변비 또는 변비경향이 있는 경우는 25.2%(467명)이었다. 또한 설사 또는 설사경향이라고 한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8%(163명)이었다. 변을 참는 습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주 참는다가 222명(11.8%), 때때로 참고 있다가 1407명(75%)이었다. 배변중 항문통증에 대해서는 959명(51.6%)이 항문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배변후 출혈에 관해서는 28.2%는 자주 또는 가끔씩 배변후 출혈을 경험하고 있었다. 항문탈출(Anal tag)에 있어서는 9.1%는 항상 또는 때때로 항문탈출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는 조사대상자의 18.5%는 항상 아침식사를 거른다고 응답하였고, 주 1-2회 결식도 25.2%나 되었으며, 또한 매일 결식하는 경우도 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식사에서 주 1-2회 결식이 32.3%(602명)이었다. 매일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은 34.1%(6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거에 다이어트를 해본 경우가 25.2%(471명),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가 7.3%(137명)으로 32.5%가 다이어트를 현재 진행중이거나 과거에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65.2%(1215명)는 때때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8.8%는 항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으며, 단지 6.0%만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험기간중의 배변습관 변화에서는 변화가 없다가 전체의 66.5%(1239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변비경향(17.5%)이나 설사경향(11.1%), 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도 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화장실에 대해서 77.9%가 좌변기라고 응답하였으며, 수세식은 10.9%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데 설치도 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화장실에 관해서는 98.4%가 수세식 화장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이 선호하는 학교화장실의 종류로는 수세식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좌변기(39.8%), 비데설치 좌변기(14.7%) 순으로 나타났다.

변비 또는 변비경향과 관련 있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선택된 변수는 성, 학교계열, 배변횟수, 변을 참는 습관, 정신적 스트레스, 주 3회이상 야채 섭취였으며, 배변후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의미있는 변수로는 성, 배변을 참는 습관, 학교에서의 배변, 정신적 스트레스, 다이어트 경험이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고, 항문출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배변횟수, 학교에서의 배변여부, 집화장실 환경, 식사의 불규칙성, 주 3회이상 야채섭취가 의미있는 변수로 선택되었으며, 항문돌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변횟수, 학교에서의 배변, 집 화장실 환경, 정신적 스트레스, 점심식사 여부 등이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4. 고찰

위의 결과를 요약해 볼 때, 치핵과 치루에 관련되는 항문질환의 진단계 또는 현증 증상인 변비, 배변후 통증, 항문 출혈 및 항문 돌출의 위험요인은 성 즉, 여학생, 배변횟수가 적을수록, 불규칙적인 식사습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학교내에서의 배변이 적을수록, 집화장실 환경이 나쁠수록, 야채의 섭취가 적을수록, 변을 참는 습관이 있을수록, 다이어트 경험이 있을수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교육과 학교 및 가정의 화장실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보이며, 추후 다양한 연구변수를 포함하고 학교 청소년의 다양한 학년을 포함한 잘 고안된 연구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